

휴스턴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 경매 취소 1달러 때문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 경매가 취소됐다. 취소 이유는 우승 반지를 나누어줄 때 받았던 '1달러 반환' 동의서 때문이다.

휴스턴 지역지 '휴스턴 크로니클'은 반지 경매를 진행했던 골든 옥션스가 지난 29일 2017년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 경매를 취소하고 반지를 위탁자에게 돌려준다고 보도했다. 경매가 돌연 취소된 것은 반지를 나눠 준 휴스턴 구단의 흥미로운 조건 탓이다.

휴스턴 구단은 2017년 우승 당시 선수, 코치진을 비롯해 클럽하우스와 트레이닝 스태프, 구단 프런트, 의료진 등에게 총 1,332개의 반지를 제작해 나눠 줬다. 이때 구단은 단 1달러에 구단이 우승 반지를 되살 수 있다는 동의서를 받아 냈다. 사람들이 합부로 반지를 내다 파는 것을 막고자 구단이 보호장치를 내건 셈이다.

휴스턴 구단은 이 같은 조건을 근거로 골든 옥션스와 접촉해 우승 반지를 경매 물건에서 빼줄 것을 요구했고, 결국 경매가 취소됐다. '염소의 저주'를 끊은 시카고 컵스 역시 2016년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나눠 줄 때 같은 내용의 '1달러 반환' 동의서를 받았다. 세계 최고 권위 영화상인 아카데미상(오스카) 트로피도 역시 같은 조건이 걸려 있다.

경매에 나온 반지는 휴스턴 스카우트인 데이비드 브리토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지난 2월 이 우승 반지를 누군가에게 팔았고, 그 반지가 경매에 나온 것. 당시 '사인 훔치기 스캔들'의 불명예가 덧씌워진 휴스턴 우승 반지가 경매에 나오자, 과연 얼마에 낙찰될지 궁금해하는 호사가들이 많았다. 초기 입찰가 7,000달러였던 이 반지는 최대 1만 4,000달러까지 호가했지만, 결과적으로 1달러를 넘을 수 없었다.

휴스턴 우승 반지는 모양이 모두 같지만, 소재에 따라 총 4가지 타입이 있다. 최상급 우승 반지에는 무려 214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다. 16개의 천연 블루 사파이어와 9개의 천연 오렌지 사파이어도 장식돼 있다.

조던 "코비가 농구 기술 너무 자주 물어 짜증"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의 경쟁심과 승부욕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하지만 그런 그도 이 같은 열정에 혀를 내두르는 이가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지난 1월 17일 헬리콥터 사고로 세상을 떠간 코비 브라이언트다.

지난 27일 '점프볼'에 따르면 스포츠 전문매체 일러스트레이티드(Sports Illustrated)는 최근 NBA 2K(nba2k.com)와 조던이 진행한 인터뷰를 공개했다. 조던은 "현역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수와 일대일 맞대결을 펼치고 싶나?"라는 질문을 받고 "전성기 시절의 제리 웨스트, 엘진 베일러, 코비 브라이언트,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그리고 카멜로 앤써니까지 정말로 많은 선수들이 있다. 특히 이 중에서 코비라면 나를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고? 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스킬들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을 전했다.

코비는 유년기 시절부터 조던을 이상으로 섬겼다. NBA 선수가 된 이후 틈만 나면 조던을 찾아가 기술

에 대해 조언을 구했고, 2016년 은퇴한 뒤 딸 지아나의 코치를 맡을 때도 유소년들을 위한 지도 방법 등을 물었다는 후문이다. 물론 조던 역시 가까이 코비의 멘토 역할을 자처했다.

조던은 "코비는 현역 시절 틈만 나면 나에게 전화를 걸어 농구 기술과 관련해 조언과 자문을 구했다. 이러한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그가 역사상 최고 선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던은 이러한 코비의 열정에 얽힌 일화 하나를 공개했다.

조던은 "처음에는 너무 자주 연락이 와 짜증이 났다. 어느 날은 새벽 2~3시가 넘어서도 전화가 온 적이 있다. 이처럼 그는 틈만 나면 나에게 연락을 해서 농구 기술과 트라이앵글 오픈스에 관해 물어보곤 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훗날 그가 NBA 역사상 최고 선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코비의 열정이 있다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모두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LPGA, '7월 중순 투어 재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7월 중순 재개한다.

지난 29일 '뉴스1'에 따르면 LPGA 사무국은 전날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돼 있는 2020시즌을 7월 중순에 재개한다는 현 시점의 목표를 선수들에게 공지했다."며 새로운 투어 일정을 공개했다.

마이크 완 LPGA 커미셔너는 "현재 한가지 확실한 것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이라는 새로운 일상 속에서 아직은 안전하게 경기에 복귀해도 된다는 확실한 신호가 없다는 것"이라며 "솔직히 경기를 재개하는 '최초'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었다. 우리는 여행금지 조치와 진단 가능 여부 그리고 스폰서와 선수들이 즐겁게 참가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즌 일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7월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시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날 발표된 재조정 일정에 따르면 6월19일부터 21일까지 아칸소 로저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은 8월28일부터 30일까지 자리를 옮긴다.

7월9일부터 12일까지에 오하이오주 실바니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마라톤 클래식은 7월23일부터 26일까지로 조정됐다.

이번 추가 변경으로 2020시즌 LPGA 투어 일정이 완성됐다. 모든 선수가 출전하는 공식 풀필드(full-field) 대회 일정 제한에 따라 UL인터내셔널클라운이 2020년에는 열리지 않는다. 또 기존에 한차례 연기됐던 볼빅 파운더스컵과 롯데챔피언십, 휴젤-에어프레미아 LA오픈, LPGA 메디힐 챔피언십 등도 2021시즌에 복귀한다.

한편 LPGA 많은 대회들의 상금이 증액돼 시즌 총 상금은 5,600만달러 이상으로 늘어난다. 선수들은 대회당 평균 270만달러에 달하는 총상금을 놓고 대회를 치른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